

### “바른 생각 머무는 곳 거기가 진실한 세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생각이 머무는 곳이 정말로 아름답고 진실한 세상이라는 소중한 진리와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전용찬 경북경찰청장. 그가 그동안 불자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린들을 모아 수상집 <아침 풍경> (우리를 내놓았다.

책은 잃어버린 달을 찾아서 꽃피고 새 우는 계절 등 모두 4장으로 나눠 40여 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 즉 인연에 대한 글이 유난히 많다.

인연의 소중함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는 지은이는 “순리를 거스르는 인연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인생의 일 본 일 초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를 한 눈 뜨고 자는 포들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남다른 인연관을 갖게 된 것은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신행해온 결과이다. 전 청장은 신행뿐만 아니라 전법활동에서 남다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서울 경찰청에서 근무하다 경북경찰청장으로 옮긴 이후에도 경찰불자들의 인력한 신행활동을 위해 청사내 교육관 밑에 법당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경승의 활성화를 위해 불국사, 은해사, 직지사, 고운사 등의 스님을 경승으로 모셨다. 그는 골골마마 사찰 등 오래된 문화재가 많은 경북지역의 경찰청장으로 부임한 것은 “문화경관임을 자임하는 경찰관으로서 큰 행복”이라고 말한다.

이런 그가 신행의 지표로 삼는 것은 평상심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가르침이다. “바로 옆집도 마음이 없으면 발길이 안 가지만 천만리 먼 데라도 마음만 있으면 달려가듯, 답답할 때 마음의 절에서 부처님 뜻을 헤아려 보는 평소 마음(平常心)이 곧 부처님의 마음(佛心)임을 알아야 한다.”

잡자리 머리맡에 메모지와 연필을 늘 두고 사는 전 청장은 지난 92년 <우리문화>에 시(詩)로, 93년 <문예사조>에 수필로 등단한 작가다. 현재 경찰청 및 서울 경찰청 문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사찰을 찾을 때면 늘 글을 쓴다. <아침 풍경>에도 경주 분황사와 불국사 등을 참배하고 쓴 시가 실려 있다.

“어지러운 마음 찾아와/ 여래의 필만 사천 범문 들고/ 개인과 발심 숫구쳐 중생심 다 버리고/ 자기 발 아래 어둠 살피서/ 참된 생각, 선한 행동으로/ 육도윤회 바른 길 찾아가는 무한 도량이라네...” <월산 스님 열반 4주기 날 문화회관 개관식 날 지은 문화사전 앞에서> 중에서

김중근 기자

### 25년전 세간으로 나왔던 법운 보림위해 산으로

지난 79년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만다라> (김은강)가 22년 만에 개작되어 나왔다. 절판돼 시중 서점에서 볼 수 없었던 <만다라>는 다시 독자들 곁으로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지은이 김성동(54) 씨는 깊은 산 속으로 몸을 숨겼다. 강원도 병천군 진부의 오대산 속으로...

지은이가 환속 25년 만에 산으로 들어간 까닭은 무엇일까. 이를 놓고 지인들은 이번 개작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초간본은 주인공 법운이 피안행 열차표를 찢고 속세로 달려가는 것으로 결말이 난 데 반해 개작판에는 법운이 피안행 열차표를 들고 정거장으로 걸어가는 것으로 결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 김성동 개작 ‘만다라’

개작판을 탈고한 후 강원도 산속에 머물다 14일 처음으로 서울에 모습을 나타낸 지은이는 이에 대해 “확고한 진리를 얻었다고 해도 20대의 젊은 수행자가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개달을 이후의 보림의 필요성을 지은이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 깨달게 된 셈이다. 사실 지은이는 처음 <만다라>를 내놓았을 때 스님들로부터 “왜 작위적으로 주인공을 속세로 나오게 하느냐, 산으로 들어가서 더욱 공부에 전념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때마다 “당신들이 문화를 아느냐”며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 시대는 내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 불교의 깊고 넓은 세계를 20~30대의 젊은 열정으로 다가갈 수 있겠는가. 법운이 다시 산문으로 들어간 까닭

도 공부(정진)를 더 한 다음, 속세로 나와 그 깨달음을 중생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소설의 완결 구조에 더 부합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은이는 작은 깨달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세속으로 곧바로 나오지 말고 보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 공부 더한 후 다시 속세로 중생위해 깨달음 회향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작판은 지은이의 연륜과 수행 그리고 지적 성찰의 집적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초간본에 비해 불교적 성찰의 형상화를 위해 훨씬 많은 공을 들였다는 데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지난 스님의 감성적인 방향 부분을 가지치기하거나 다듬은 점, 뼈를 깎는 지산의 참선과 단식 부분이 더욱 밀도 있게 그려졌다. 이 밖에도 진지한 성찰의 흔적들은 보다 분



실한 구도 소설로 비치게 한다.

만다라의 주인공 법운은 곧 작가의 분신이라고 말하는 지은이는 다시 오대산으로 향했다. “진정한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체의 것들을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 비워내지 않고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인적이 끊어진 깊은 산골 농막에 ‘토굴’을 마련하고 문학적 해탈을 위한 정진을 시작한 지은이의 올 겨울 화두는 요승으로 일컬어지는 신돈을 역사적으로 복원시키는 것이다. 내년 봄 내놓을 장편소설 <마하 신돈>이 바로 그것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gampa@buddhania.com

### 동양 고전해독의 열쇠



‘허사대사전’ 연세대 펴냄

한문경전을 모본으로 하여 출간된 우리말 경전들이 많다. 하지만 상당수 책들이 번역에 있어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대표적인 것이 ‘허사(虛詞)’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허사를 고전 해독의 열쇠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민약 경전번역에 있어 허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연세대학교 허사사전편집실에서 펴낸 <허사대사전> (성보사)을 권해 본다.

모두 1,534개의 표제자를 실고 있는데, 이 중 순수하게 허사로 쓰인 것은 1,443개이다. 값 4만8천원.

김중근 기자

### 우리가 살아야 할 현실 ‘가상공간’

‘디지털시대의...’ 고려대장경연구원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는 컴퓨터는 특히 가상 현실 또는 가상 공간의 분야에서 인간의 의식과 생활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가상 현실은 비록 허위이지만 그 효력마저 허위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소공포증에 시달리던 환자가 절벽이나 고층 옥상에 홀로 서있는 가상 현실을 체험하여 고소공포증을 해소한다.

가상현실을 여러 영역에서 조명해 <디지털 시대의 문화변동> (고려대장경연구원)이 나왔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지난해 9월 실험적으로 개최한 세미나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문화 변동’의 결과물이다. 과학·예술·철학과 종교 전문가 12명은 자기 분야와 디지털 기술의 관계와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문화 변화추이를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망도 시도한다.

불교분야는 정승석 동국대 교수의 인도 전통 종교의 불교에서 가상 현실의 의미’를 실고 있다. 정 교수는 “불교나 힌두교에 있어 가상 공간·현실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주체와 능력을 탐구하는 것이 힌두교와 불교의 최대 관심사이자 쟁점이었다”며 가상현실이 만들어내는 문제와 그 해결책까지 제시한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사야만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금강경 강의	각 록	불광
2	풍경소리	풍경소리	샘터
3	꽃담	해 만	시공사
4	찾진 속에 달이 뜨네	지 운	법공양
5	무상심요법문	박 건 주	운주사
6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림
7	영기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족사
8	생활수행 이야기	법 상	불광
9	거울	원 성 이	레
10	불교수행의 이론과 실제	관종국·김영관	근본불교회

도서 안내: (02) 737-0695

### 존재이자 無인 시간의 비밀



#### ‘시간의 철학적 성찰’ 소공희 지음

철학자 소공희(67) 서울대 명예교수가 ‘시간’에 관한 <시간의 철학적 성찰> (문예)을 내놓았다.

책은 시간에 대한 상식적·과학적인 견해를 살린 ‘일반 시간론’과 시간에 대한 그 동안의 철학적 견해들을 다룬 ‘철학적 시간론’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일반 시간론에서는 시간에 대한 인문학적 또는 사회학적 관찰과 함께 과학적 차원의 시간론을 다루고 있다. 달력과 시계의 제작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시간개념, 태양계 안의 생명체와 시간과의 관계 등이 연구의 중심이다. 철학적 시간론에서는 시간론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신화적 담론에서부터 시작하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 하이데거의 시간론과 동양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사상적 바탕이 된 불교의 시간론을 탐구한다.

소 교수는 “불교의 시간에 대한 논의가 경전이나 종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철학적 측면으로 단순화해 살펴보면, 불교의 많은 경론소는 삼세(三世)에 걸친 의식(知·識·念)과 그것의 대상(境)과의 성불하는 방법 또는 성불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불교에서의 시간은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존재에 의존해서 있다는 얘기다. 값 2만8천원. 김중근 기자

### 기도는 꿈의 해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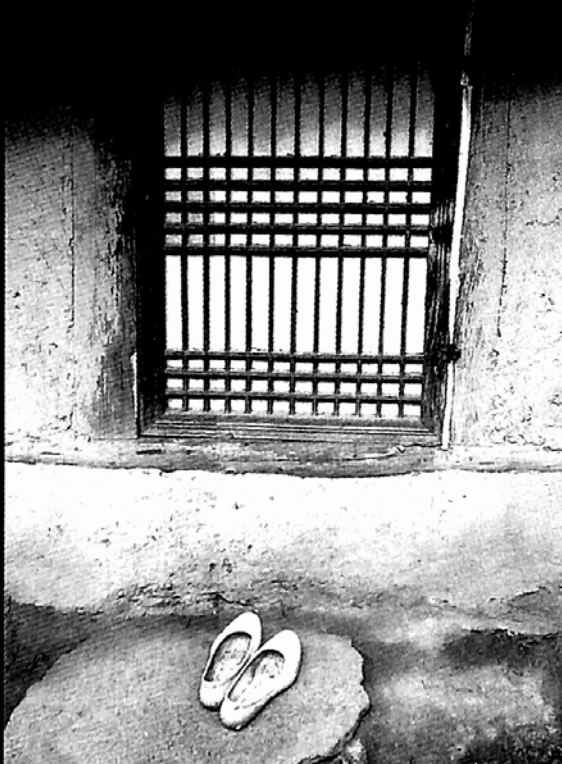
성일 스님 ‘현대 관음기도...’



성일경기도 화성 신홍사 주지 스님이 ‘10년 관음 기도’ 하는 동안 가피를 입을 이야기를 담은 <현대 관음기도 영험록> (불광)을 내놓았다.

책은 기도의 의미를 적은 ‘기도에 대하여’를 비롯해 ‘두문불출 10년 기도 가피’ ‘가난과 질병에서 살아남 이야기’ ‘자식을 위한 기도’ 등 6부문으로 나눠 120여 편의 글이 실려 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성일 스님이 관음기도를 통해 직접 체험한 실화들이다. 스님은 기도 성취가 불교의 근본 목표는 아니라고 조언한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불이고, 성불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 외딴 섬 스님이 일구는 따뜻한 삶의 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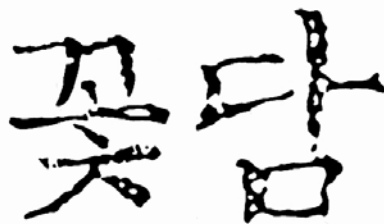


스님은 얼핏 수줍고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다. 그래서 큰 스님들의 훌륭한 인품과 고된 수행 모습에서 느끼는 감동과는 또 다른 순수한 감동을 읽는 이에게 선사한다. — 조선일보

스님은 무척이나 솔직해서, 가끔씩 빙그레 웃음 짓게 만듭니다.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 이야기의 경우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스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었겠어요? 읽다 보면 이분이 스님이란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 pssmm(YES24 독자서평)

내가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글 속에 묻어나 있는 진솔함 때문이었다. 갖가지 소용과 사람에게 치일 대로 치인 내게 그 책은 하나의 물과구를 마련해 주었다. — 빛망울(모닝365 독자서평)

| 푸른 섬 비진도의 작은 스님 이야기 |



해안 스님 지음 | 국판 변형 | 237쪽 | 값 7,500원

전화(02)588-0833 팩스(02)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각박한 세상살이, 하루하루 등 매달려 기듯 숨 가쁩니다.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흠어진 마음을 모으는 법을 알려 줍니다.

#### 벽 틈으로 바람 들어오듯 마음 틈으로 욕심 들어온다

이우태 외 지음 | 신국판 | 269쪽 | 값 7,000원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에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거울과도 같이 마음을 비춰 주는 책.

#### 서두를 때 서두르면 느릴 때는 얼마든지 느려도 좋다

유영호 외 지음 | 신국판 | 251쪽 | 값 6,000원

느림과 여유로 돌아보는 나와 세상. 나를 바로 찾고 세상을 바로 보고,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한 몇 가지 대답들.